



기아·질병에 시달리는 인도 어린이들. 우리의 예전 모습을 연상케 한다.

### 기아·질병에 시달리는 아이에 자비를...

JTS 21~28일 '녹수청산' 서 '인도 어린이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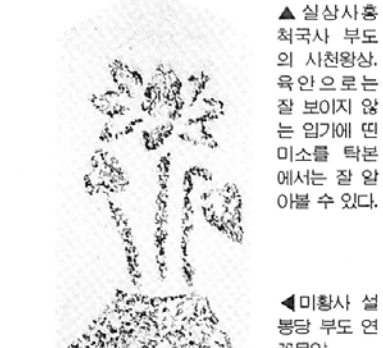
(사)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률스님)는 '제3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란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희동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다인 녹수청산(736-3782)에서 인도 어린이 사진전을 갖는다.

기아와 질병 문명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도 원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 이 지난날 공립했을 때 어려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았듯이, 세계로 눈을 돌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 그

들을 위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취지로 열린다.

배고파도 먹을 수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인도인 특히 어린이들이 어려운 생활가운데도 티없이 맑은 눈동자로 밝은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은 가슴을 뚫을 듯 울려준다. 올해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를 맞아 한층 뜻깊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JTS가 인도에 운영하고 있는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마을 어린이들의 여러 모습을 담은 사진 30여점이 전시된다.

# 천년세파 견딘 '서화세계' 초대



## 미항사등 23개 고찰 탁본 1백93점 전시

불교신앙의 예배물로서 고승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부도, 탑, 비 등은 모양에 정성을 기울일 뿐 아니라 장엄과 찬탄을 위해 곱고 아름다운 문양들을 조각해 놓았다. 이러한 부도와 비문의 문양탁본을 한자리에 모은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달마산 미항사가 주체가 되어 오는 26~31일 서울 불암미술관(733-5591), 12월1~10일 대구 예술마당 술(053-427-8141), 12월 17~21일 광주 라인문화관(062-672-1112)에서 개최되는 탁

## 서울·대구·광주등서 부도·비문 탁본展 육안엔 안보이는 섬세한 문양 볼 기회

본전에는 미항사와 9산선문을 비롯한 전국 23개 고찰의 석탑과 비문에서 떠온 문양탁본 193점이 전시된다. 미항사의 고압당(孤庵堂)부도, 태안사 해철스님부도, 실상사 홍취국사 및 수철화상 부도, 굴산사지 석천선장상, 선운사 백파스님비문, 대흥사 추사글씨 무량수각, 화엄사석탑 비천주약상, 흥천절리 불상광배 등 빼어나면서도 시대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양들이 선보인다. 특히 30여개가 넘는 부도군으로 유명한 미항사의 문양은 연꽃 오리 거북이 방아찰는 토끼 사슴 물고기 도깨비 등 민속적이며 일상생활적

▲실상사 홍취국사 부도 의 시천왕상.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입기에 띠 미소를 탁본에서는 잘 알아볼 수 있다.

◀미항사 설방 부도 연꽃문양.

다는 점도 한 즐거움이 될 것이다.

유홍준교수(영남대 미술사학)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탁본의 현장에 가보았던 사람은 육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양들의 수려한 자세에서 신비함마저 느끼게 될 것이며 현장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탁본문양이 새겨져 있을 그 석조물의 실물을 현장에 달려가 보고픈 충동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며 말없는 돌덩이라고 예사로 불일이 아니라는 경우를 주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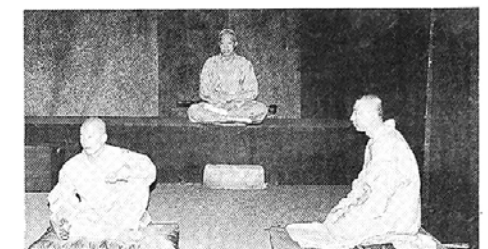
이경숙 기자

## 연극 평

### 뜰앞에 잤나무

극단 '원자무늬'의 '뜰앞에 잤나무(원담스님 작 김태수 연출)'는 상연되는 2시간 내내 관객들을 긴장시키는 연극이다. 가벼운 연극이 판을 치는 동승동 연극거리에서 '뜰앞에...'는 크게 두가지 사실을 통해 보는 관객들에게 화두를 던진다. 현대한국불교사의 최대 사건중 하나이면서도 아직까지 진상이 묻혀 있는 10·27 법난을 소재로 삼아 법난으로 인한 불교계의 치욕을, 피해당한 스님과 그 주변사람들을 그리움으로써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우선 과격적이다. 80년 10월 당시 직접적인 피해

## 개인사 사회 '인연고리' 풀어내



를 당한 스님들은 수백명이며 지난 90년대 오늘을 사는 불자들 역시 연관이 누구도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인도에서 귀국한 광탈(오광록 역)은 어머니의 권유로 일운스님(조종원 역)의 문상을 가고 곧 그 스님이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알게되며 충격과 갈등이 깊어진다. 생부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운스님이 10·27대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며 10·27의 진상을 알게되면서 광탈은 자신과 어머니, 생부 일운스님, 그리고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양부 등이 서로 피할 수 없는 과보의 근속에 얽혀있는 인과를 발견하게 되고 왜 일

인, 나아가 사회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연극의 마지막부분에서 일운스님의 도반인 만화스님이 광탈에게 "네 눈에만 들리고 사사사찰 국화를 가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의 욕심일뿐"이라는 말과 함께 '뜰앞에 잤나무'라는 화두를 던져줄 때 관객들은 광탈과 함께 화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극적 무대장치없이 조명만으로 변화를 준 것은 인물들의 대사에 한층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구어(口語)에 의지한 극의 진행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낯해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속)

## 김달진시인 작품 엮보기

문학 심포지엄·백일장·도서전 등 다채

### 경남 진해서 18~20일 제1회 문학제



◇김달진 시인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양적 정신세계를 시로 융화시켜 낸 시인 및 불교학자 월하 김달진의 삶과 작품세계를 기리는 문학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 고향 경남 진해에서 펼쳐진다.

오는 18일 저녁 7시 진해시 민회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동안 청소년문학의 밤, 백일장, 기념강연, 문학심포지엄, 김달진시인 생가방문 등의 행사와 한국근현대 교과용도서전시회가 개최된다. 19일 오후2시부터 진해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문학심포지엄은 '한국현대시와 생명문제'를 큰 주제로 정과리(충남대 교수) 김주연(문학박사) 박준건(부산대 교수)씨가 발제자로 나서고 양은진(경남대교수) 김영호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김달진시인과 '김달진과 불교문화', 김윤식(서울대 교수)씨가 '이하석의 시세계' 유중호(연세대 교수)씨가 '한국시의 언어와 정신'이란 주제로 기념강연을, 올해 김달진문학상 수상자 시인 송수원씨가 자신의 시세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문학심포지엄에는 김경길 박완서 오세영 김재홍 최홍호 박덕규 등 문인 1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월하 김달진 시인은 지난 1907년 진해시 소사동에서 태어나 1929년 <문예공론>을 통해 등단했다. 30년대 서정주 김동리 오정환 등과 '시인부락'의 동인으로 활동한 김달진은 34년 금강산 유정사에서 운악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39년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 승려생활을 했으며 1964년부터 운악스님과 함께 동국대 동국역경원 심사위원 및 역경 작업에 몰두했다.

지난 83년 불교정신문화원에 의해 '한국고승석'으로 추대됐으며 지난 89년 별세했다. 저서로는 시집 <청시>, 김달진시집(올해의 노래), 장편서사시집(큰 연꽃 한송이 피기까지)와 <한국선시> <붓다차리카> <보조국사전서> <금강삼매경론> <법구경> <담시전서> <한국월경> 등의 번역서가 있다. (속)



## 불상등 고미술 230점 전시

다보성 전시관 26일까지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과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불상 3점과 범종, 고려시대 삼층·칠층(사진)·구층 청동탑과 소형 범종, 조선초기 분청화백어문병 등 아름다운 고미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전시회가 열린다.

다보성고미술전시관은 오는 26일까지 불상 불탑 범종 등 불교유물 20여점, 고려청자 백자 분청사기 도기 등 도자기 80여점, 서화 50여점, 민화 30여점, 목기류 30여점 등 총 230여점의 명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다보성고미술관측은 오는 11월 1일 전시현장에서 경매를 실시한다. (02)581-5600.

## 문화 소식

### 월하시조문학상 제정

원로 시조시인 월하(月河) 이태극씨(83)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월하 시조문학상'이 연내 제정된다. 민족문학인 시조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0년 이상의 시조시인 및 시조연구·평론가를 대상으로 한 월하시조문학상은 △시조작품상 △시조 학술(평론)상 2개 부문으로 나뉘어 매년 10월께 시상될 예정이다.

### 동국청소년 연극영화제

청소년 연극 영화인 발탁을 위한 '동국청소년 연극영화제'가 오는 26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개막된다. 미래 문화예술계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게 연극 및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작품창작 행위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동국청소년 연극영화제'는 지금까지 경기 인천 광주 마산 청주 등 20여개교에서 참가를 신청했다.

준비위원회(위원장 신영섭 연극영화학부 교수)는 이달 중

순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대본심사로 결선작가작을 결정, 오는 26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체와 개인으로 나뉘어 시상되며 개인상 수상자들에게는 동국대를 지원할 경우 입학사 특전도 부여한다. (02)260-3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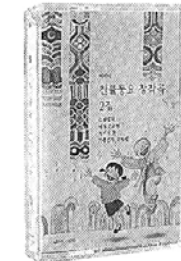
### '천불동요' 태요2집 나와

어린이 청소년 찬불가전문제작기획사 '순(대표 이종민)'은 '천불동요 찬양곡 제2집(사진)'을 펴냈다. 황학현 최미선 나동욱씨들이 작사를 하고 민선희 유익상 최미선 나동욱 박이제 정유탁씨들이 작곡에 참여한

### 임이조 전통무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이매방류) 이수자 임이조씨(46)가 지난 13일 KBS홀에서 '흙인생 41년, 한이 깊으니 흥도 깊더라'를 주제로 한 전통무 공연을 가졌다. 제1부는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 한량무 등 대표적인 전통무와 경기민요창·판소리 등 노래와 춤의 만남으로 엮어졌고, 2부는 무속음악에 춤을 형상화시킨 창작무 '신무(神舞)'가 공연됐다.

◇기아대책 '불심시심' 캠페인.



이번 찬불동요집에는 '스님생각' '부처님 되리라' '까리까리' '나의 큰소원' '기쁨인가' 등 널리 알려져 있는 곡과 새로 작곡한 곡 등 16곡이 들어 있다. (02)730-7525

웃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 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 공평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이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